

# “이 땅에 평화를”... 세계종교지도자 DMZ 선언

## G20 정상회의의 맞아 정신적 변영 기원

### 바벨 외젠버그 독일 루터교 교회 주교

“한반도가 분단된 현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분단 상황이 해결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를 올립니다.”

### 도우두우 디엔 전 유네스코 세네갈 대표

“아프리카도 내전이 심한 곳입니다. 아프리카의 아픔이 여기서도 느껴집니다. 전 세계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 이자즈 아크람 파키스탄 라호르대 교수

“비무장지대(DMZ)의 경관이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움 이면에 남북의 갈등 또 그로 인해 상처받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며 “G20 정상들의 노력이 한반도에 더 큰 통합과 조화를 가져오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종교지도자들은 물질적 추구와 정신적 포부 사이의 간격을 줄이고 조화를 이루는 일이 인류의 존속을 위한 우선 과제임을 알고 있다”며 “인류의 문제를 자비롭게 해결하고 생명을 살리는 지구촌을 만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불자로 알려진 디나 메리암 GPIW 회장은 행사 이후 “북한과 대치한 이 지역에서 행사를 열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디나 메리암 회장은 “이번 행사는 선진국들의 변영을 논의하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신적 변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아직까지 전 세계에는 한국의 분단현실을 비롯한 수많은 아픔이 많다. 이 땅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열의가 북한의 많은 분들에게도 전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태고종 영산재보존회의 영산재 시연으로 DMZ행사를 마친 종교지도자들은 서울 진관사에서 사찰음식을 체험했다. 진관사의 사찰음식은 각각 종교지도자들에서 감사사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했다.

### #세계평화여성지도자회(GPIW)는?

세계평화여성지도자회(GPIW)는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단체다. GPIW는 2000년 제네바 UN본부에서 열린 ‘밀레니엄 세계평화 정상회의’를 주최하며 설립했으며 현재 세계 종교지도자들의 국제 네트워크로 종교와 성(性), 국경을 초월해 활동하고 있다.

글=노덕현 기자, 사진=박재환 기자



고지에 자리한 철원 DMZ평화전망대에 부는 영하의 차가운 바람도 한반도의 지구촌 평화를 바라는 각국 종교자들의 뜨거운 열기를 식힐 순 없었다.

전 세계 종교 지도자를 비롯한 학자 150여 명이 11월 8일 한반도 분단의 현장인 비무장지대(DMZ)를 찾았다. 이날 종교지도자들은 중부전선 최전방인 강원 철원군 DMZ평화전망대에서 직접 남북 분단의 현장을 목격하며 두 손을 모았다.

이날 모인 종교인들은 조계종 포교원장 혜종 스님과 현각 스님, 태고종 봉원사 주지 일운 스님 등 한국대표를 비롯해 바벨 외젠버그 독일 루터교 교회 주교, 사라다루 라나드 인도 힌두교 학자, 도우두우 디엔 전 유네스코 세네갈 대표, 산트 벨비르 신 시조할 인도 시크교 대표, 히로시 마츠모토 일본 ITRI대표 등 종교, 국적, 인종을 초월해 다양했다. 이들은 G20정상회의를 맞아 한국에서 영적 포럼을 열고 있는 세계평화여성지도자회(GPIW)와 불교여성개발원이 초청한 인사들이다.

이처럼 전 세계 종교지도자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DMZ일대를 방문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초청된 인사들은 분쟁 지역이거나 분쟁이 해결된 지역의 종교지도자란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의 분단 현실에 깊은 관심을 보

이며 함께 자국의 갈등 해결과 지구촌 평화를 함께 모색했다.

매서운 칼바람에도 이들은 평화전망대 입구에서 전망대까지 걸어가 ‘침묵의 행진’을 봉행했다.

“이곳은 이른바 ‘철의 삼각지’로 6·25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쪽에 보이는 일명 ‘피의 능선’에서는 UN군 1만 5000여명, 중공군 3만 여명 등 무려 4만 5000명이 전사했습니다. 최근 남북 경색 국면으로 북한군이 북방한계선의 남측한계까지 초소를 내린 상황입니다.”

김철호 평화전망대 소장의 브리핑이 진행되는 동안 종교지도자들 사이에는 긴장감이 돌았다. 브리핑 이후 이들은 종교별로 평화를 기원하는 종교의식인 ‘평화를 위한 기도’, ‘화합을 위한 정화의식’을 진행했다. 각자의 종교의식이 다르지만 이들의 마음은 하나였다.

종교의식 이후 세계종교지도자들은 ‘DMZ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남북한은 자원과 성지, 종교적 유산, 언어와 역사적 기억들을 공유하고 있다. 이런 수많은 공통점에 비할 때 남북한의 차이점은 아주



각국 종교지도자들이 이웃종교의 종교의식을 지켜보며 함께 기도하고 있다.

### 세계종교지도자회의 DMZ 공동선언문

세계의 정치지도자들은 남한과 북한의 분단 문제를 해결하고 그로 인한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종교지도자들 역시 해결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려왔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지구촌은 이전 에 비해 훨씬 더 긴밀하게 연결됐고 구성원들의 상호 의존성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지구적 문제들이 대두됨에 따라 협력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양한 종교와 문화를 대표하는 세계 곳곳의 종교 및 영적 지도자들을 한반도에서 남한과 북한의 화해와 치유를 기원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남북한이 서로 협력하고 힘을 합쳐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창출 할 수 있도록

기도를 올립니다. 예로부터 남한과 북한은 세계 문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전통과 역사가 빛나는 문화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한은 자원과 성지, 종교적 유산, 언어와 역사적 기억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공통점에 비할 때 남북한의 차이점은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이제 서울에서 G20 정상들이 모여 세계경제의 현안을 논의하고 경제적 평등과 균형을 이룩할 방안을 모색하는 이때에 우리는 이런 노력들이 한반도에 더욱 큰 통합과 조화를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지구촌 전체가 하나의 가족임을 깊이 인지하고 각 나라의 차이를 특성으로서 존중하며 우리는 인류의 공동번영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함께 노력

할 것을 서약합니다. 우리 종교지도자들은 물질적 추구와 정신적 포부 사이의 간격을 줄이고 조화를 이루는 일이 인류의 존속을 위한 우선과제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G20정상회의와 나란히 서울에서 모인 이유도 새로운 차원에서 변영을 이해하도록 돕고 그 이해의 지평을 넓히기 위함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서약합니다. 모든 이의 필요에 자비롭게 부응하며, 미래세대를 위해 자연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할 것과 보다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 공동체를 실현할 새로운 구조와 체계를 만들기 위한 창조적 성찰에 함께 할 것을 서약합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이 이 서약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10년 11월 10일 대한민국 DMZ에서

## 대한민국 전통 상감청자 법륜대 사찰경제 바꾼다!!!

### 부처님이 봉안된 법륜대 만년 등으로 활기...

#### 전통 상감청자 법륜대

1. 수미단에 천불보탑 만년 등으로 시주자 명단을 새길 수 있습니다.
2. 전생 빛 해탈을 위한 황금 빛 금강경을 복장하는 법륜대입니다.
3. 가족의 소망을 적어넣고 직접 돌리는 신비한 법륜대입니다.

#### 천년의 숨결로 살아온 상감청자!

그 전통과 자연으로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사찰경제 발원과 불제자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청다향의 마음입니다.

정갈하고 청정한 부처님의 공양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달마사 청오 합장



실용신안 특허의 기술  
 -제품명: 순금 상감청자 법륜대  
 -높이: 120cm  
 -원통폭: 45cm  
 -발바닥폭: 30cm  
 -무게: 25kg



•문의 :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010-4595-0017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령리 1156-4 달마사